

도시재생 정책 동향

Urban Regeneration Trends



기사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 | 2025. 12. 18.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5~12, 서면)를 통해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기본사회로의 전환 본격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 2025. 12. 15.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지역문제, 지방정부-기업- 자매결연 기관이 '협업'으로 해결한다

행정안전부 | 2025. 12. 15.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5일(월), 행정안전부 민원동 대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및 자매결연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심사위원을 비롯해 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유공자, 지방정부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마을 주거환경 개선되니 지역에 활기 돌아”

지방시대위원회 | 2025. 12. 16.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 완료된 지역(73개 지역) 중 사업평가를 통해 11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발표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정책Brief 제1042호] 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토연구원 | 2025. 12. 15.

- ① 법령상 정의에 따른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2024년 12월 최초의 일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호, 전국의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약 0.7%로 확인되었음
- ②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빈집 정비실적은 약 2만 2천 호 수준으로 유형별로는 단순철거의 비중이 전체 빈집 정비의 약 87%로 대부분을 차지

충남 도시재생 소식

충남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4곳 선정

충남도 | 2025. 12. 21.

충남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3개 시군 4개 지역이 선정돼 국비 482억5천8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 3개 유형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도내에서는 공주시와 당진시(2곳), 아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도는 올해 상반기 △우리동네살리기 △혁신지구 공모 선정에 이어 하반기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지원까지 모든 공모 유형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 '천안역에 찾아온 크리스마스' 전시

천안시 | 2025. 12. 15.

충남 천안시는 오는 21일까지 천안역에서 '천안역에 찾아온 크리스마스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천안시가 주최하고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역에 크리스마스가 온다면'을 주제로 열린다.

천안시, 복합캠퍼스타운 건립 본격화...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

천안시 | 2025. 12. 15.

충남 천안시(시장 권한대행 김석필)는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복합캠퍼스타운'을 건립한다고 15일 밝혔다. 복합캠퍼스타운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대학생 등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부지 매입, 지장물 이설 및 각종 인허가 등 주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공사에 돌입했다.

